

2023 새로운 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

최종 심의평

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의 지원사업 최종심의 평가에 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첨 하고자 합니다.

먼저,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한 예술 기술지원은 예술과 기술 프로그램 내용은 일부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예술에 부합한 기술 분야의 장소 선정 및 인력구성, 향후 기술 융합에 대한 연출, 구성에 있어 변경 및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예산 투입 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. 인건비 및 제작비, 기술 운영비 등이 모호하게 작성됨으로 예산 확보를 통해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간과하여 단기 쇼케이스에 집중한 예산 과다 편성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공연계획의 제안서에 명시한 대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검토되고 적용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평가하였습니다.

다음은 예술가 외에 기술전문가의 프로젝트 개발 및 자문, 컨설팅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운영에 있어 예술적 융복합 콘텐츠로서의 완성도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. 다만, 지원한 예술인과 단체 대부분이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, 프로젝션맵핑, 3D모션캡처, 로봇 활용 등 최신 첨단기술을 접목한 무대공연을 완성하겠다고 제안한 기술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완성도 있는 구현이 될지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심의에서 중요하게 판단한 평가는 예술과 기술의 접목 과정을 통해 개인과 단체가 이 사업의 의도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장르 창작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중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융합을 통해 예술과 접목하려는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시도로서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실행할 수 있는 예술가와 인력구성을 주요하게 평가했습니다.

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개인과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실행 계획 그리고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프로젝트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을 접목해 완성도 있는 쇼케이스 및 솟품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 본 사업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중의 관심을 끌어낼 것으로 봅니다.

2023. 6. 12.

심의위원 서정미, 양승규, 윤이나, 이용주